

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니터

- 문서번호 2021미디어감시연대_부산시장보궐선거모니터_04
- 수 신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공동상임대표 김동훈·김서중·윤창현·복성경)
- 제 목 공식 선거운동 시작해도 공(空)약 나열에 그친 지역언론
- 날 짜 2021년 3월 31일(수)

유권자 선택 돕는 유용한 정보는 없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해도 공(空)약 나열에 그친 지역언론

3월 넷째 주는 2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 각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가 게시됐고, 거리 유세와 TV 토론회 등 다양한 선거운동을 통해 정책과 공약이 발표되었다.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도 더 많아졌다.

지역언론은 이에 맞춰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점검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증보다는 공약 소개와 나열에 치중했고, 후보에 대한 의혹 검증은 여전히 정당간의 공방으로만 중계했다. 특히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음에도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홀대는 심각했다.

현실에는 후보 6명, 지역언론엔 후보 2명? 공식 선거운동 시작돼도 군소정당 후보는 여전히 들러리

3월 넷째 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건수는 총 107건으로 전체보도의 11.5%를 차지했다. 지난 주 대비 0.9%가 감소했지만, 이는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전체 보도 건수가 늘면서 선거 보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결과이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총보도수	360(26)	389(26)	55(27)	63(36)	62(24)	929
선거보도	39(4)	31(2)	12(6)	14(5)	11(4)	107
비중	10.8%	8.0%	21.8%	22.2%	17.7%	11.5%
지난 주 대비	+0.7%	-2.1%	+1.0%	-4.1%	+1.4%	-0.9%

△ <표 1> 선거보도 건수, 신문 ()는 사진기사 건수, 방송 ()는 단신기사 건수

3월 2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선거보도에서 많이 언급되는 후보는 여전히 거대 양당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66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73건으로 두 후보가 언급되는 기사가 전체 후보 언급 기사의 68.5%를 차지했다. 미래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단독으로 언급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군소정당 후보 언급 보도로는 6명 후보 소개와 선거운동 행보 기사 12건, 군소정당 후보 4명만 소개한 기사 3건, 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 기사 3건이었다.

언급후보(기호순)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23	16	10	9	8	66(5)
국민의힘 박형준	28	16	11	10	8	73(12)
미래당 손상우	4	2	3	3	3	15(0)
민생당 배준현	4	2	3	3	3	15(0)
자유민주당 정규재	5	2	3	3	3	16(0)
진보당 노정현	5	2	3	4	4	18(0)
합 계	69	40	33	32	29	203
취재원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더불어민주당 측, 김영춘 후보	12	15	8	6	8	49
국민의힘 측, 박형준 후보	14	11	9	8	8	50
군소정당 후보	1	1	1	1	2	6
여론조사기관(연구원)	10	2	0	1	0	13
부동산 중개인	0	2	0	1	0	3
시민단체	1	0	0	1	1	3
기타(시민, 자료 등)	1	2	0	1	0	4
합 계	39	33	18	19	19	128

△ <표 2> 기사에서 언급된 후보와 취재원, ()는 단독 언급 보도건수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홀대는 기사에 인용된 취재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김영춘 후보·국민의힘 인사와 박형준 후보를 인용한 기사는 99건으로 77.3%를 차지했다. 반면 군소정당 후보가 취재원으로 인용되는 기사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 중 1건은 KNN <박형준 후보 건물등기 누락, 여.야 공방>(3/24) 기사에서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박형준 후보의 미등기 건물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부산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또 KBS부산 <재난지원금 '찬성'...지원 방식은 달라>(3/25), 부산MBC <여야 후보 '이것만은 꼭 추진'>(3/26) 보도에서는 등록된 6명 후보 모두를 소개하거나 부산 이슈에 대한 답변을 전하는 내용 이어서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에 비해 언급량이 현저히 적었다.



△ 선거운동 첫날(3/25) 지역방송 뉴스 (좌)부산MBC, (중) KBS부산, (우)KNN

선거운동 시작일을 반영한 3월 25일 방송 뉴스와 3월 26일 신문 기사를 살펴보았다. 부산MBC는 <부산도 선거운동 시작..김영춘, 박형준 격돌>에서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행보와 선거 전략만 언급했다. KBS부산은 <[공약검증K] 재난지원금 '찬성'...지원 방식은 달라>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6명 후보의 답을 전했다, <“교육발전기금 1조 조성”...“中企 중심도시 육성”>(단신), <부산시장 후보 재산...김영춘 11억·박형준 48억>(단신)은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정책과 재산 신고 내역을 소개해 군소후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 선거운동 첫날 보도(국제신문, 3/26, 1면)

탄소배출·민생·군 공항·세균실험... 군소후보들, 공약 차별화 행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운동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군소후보들도 본격적인 유세에 돌입했다. 가덕신공항 사업 백지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당 손상우 후보는 이날 선거 캠프 사무실을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이전했다. 그는 “(거대 여야 정당은) 선거철만 되면 떠드는 신공항 건설 공약을 중단하라”라며 “시장이 되면 기존 부산시 중점사업은 '탄소배출 저감, 생태환경 보존, 불평등 완화'를 기준으로 재평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민생당 배준현 후보는 첫 유세를 부산 동구 부산역 일대에서 시작했다. 정주여건이 낙후된 원도심에서 일정을 시작한 것은 소외된 부산시민의 삶을 돌보겠다는 배 후보의 의지다. 그는 “시민이 주인 대접을 받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배준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강조했다.

거대 여야 정당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는 이날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마주보고 유세를 펼쳤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덕신공항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 후보를 향해 “가덕도 외딴 섬에 8조 원을 들여 활주로 하나 짜리 공항을 만들어 놓고 국제공항에 관문공항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미군 세균실험 폐쇄를 외치고 있는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 “19만 7747명을 대행진” 출정식을 열었다. 해당 숫자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 폐쇄 찬반 주민투표 요구 서명자 수다. 그는 “결어서 19만 7747명 주민투표 참가 시민들을 만나겠다”라며 “미군 세균실험 폐쇄라 의지를 담아 선거운동 방식도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 선거운동 첫날 보도(부산일보, 3/26, 4면)

국제신문도 3월 26일자 선거보도 7건 중 단 2건이 군소후보를 다루었다. 1건은 포토뉴스로 6명 후보 사진을 게재했고, 나머지 1건 <“우리도 봐달라” 군소후보 4색 유세> 기사에서만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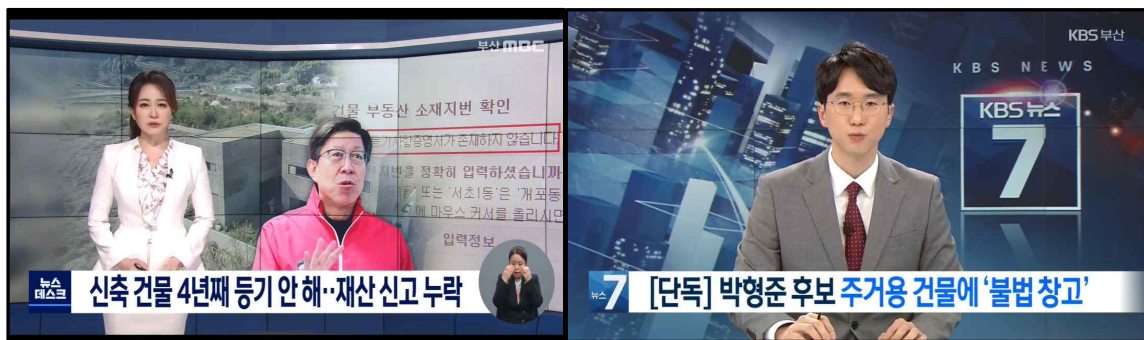
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공약을 소개했다. 부산일보 역시 선거보도 6건 중 단 1건 <탄소배출·민생·군 공항·세균실험...군소후보들, 공약 차별화 행보>에서만 군소정당 각 후보의 공약과 시정에 대한 철학을 담았다.

언론이 선거보도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는 후보에 집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군소정당 후보를 지역언론이 배제하고 홀대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군소정당 후보의 기사량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도하느냐도 중요하다. ‘우리도 봐주세요’, ‘한편...’으로 소개되는 이색적인 후보가 아닌 소수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보도가 필요하다.

꼼꼼한 취재로 '재산 검증'한 부산MBC, KBS부산 공직시절 행보와 철학도 검증 대상!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형준 후보는 MB정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사무총장 등의 요직을 거친 전국구 정치인이다. 그래서 전국 언론에서도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4대강 반대 인사 및 단체 불법사찰, 자녀 입시 부정 청탁, 엘시티 특혜, 국회 레스토랑 입찰 특혜 등)을 집중 취재·보고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그동안 전국 언론과 시민단체, 정당에서 제기하는 박형준 후보의 의혹에 대해 정당간 공방으로만 보도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언론도 후보 검증의 일환으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을 발굴해 보도했다.



△ 지역언론의 박형준 후보 의혹 발굴 기사 (좌)부산MBC, 3/23, (우)KBS부산, 3/24

부산MBC 윤파란 기자의 <신축 건물 4년째 등기 안 해..재산 신고 누락>(3/23), <4년간 미등기 건물..이제야 재산신고>(3/24)에서 박형준 후보 배우자 명의의 ‘미등기 건축물’을 확인하여, 후보 등록 시 재산 신고에서 제외된 점을 밝혀냈다. 이에 박후보 측은 행정상의 실수였다고 재산 신고 내역을 정정했고, 부산선관위는 미등기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빠진 점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또 KBS부산 공웅조 기자의 <주거용지 내 불법 창고...“법 위반 몰랐다”>(3/24) 보도에서는 박

후보 소유의 기장 일광면 토지에 소매점으로 등록된 불법 창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후보 측은 불법인지 몰랐고 곧 허물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자는 좁은 길에 화물차가 드나들어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전했다. 부산 기장군은 불법용도 변경 사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만간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역언론의 후보 검증 보도는 지역언론이기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다. 재산 신고 내역을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체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위의 기사 3건은 지역언론의 후보 검증 취재의 좋은 사례가 될 듯하다. 시장직을 수행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중요하다. 재산과 도덕성 검증을 넘어, 주요 공직을 지낸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후보의 공직 기간 중 펼쳤던 정책이나 행보에 대한 검증도 이어지길 바란다.

소개와 나열에 그친 공약 보도

군소정당 공약은 '선거구호' 정도로만 소개

유권자 판단에 도움 줄 정책검증 보도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공약과 정책도 쏟아졌다. 지역언론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소개하고 점검했는데,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을 소개·나열하는데 그쳐 전반적으로 심층성은 부족했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충실히 전한 것은 KBS부산의 [공약검증K] 기획보도였다. 3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공약검증K]는 <가덕신공항 비상할까?>(3/17), <꿈의 교통수단 '어반루프'...실현 가능성은?>(3/18), <부동산 대책...“공급 확대” 해법은 달라>(3/23), <재난지원금 '찬성'...지원 방식은 달라>(3/25), <난개발 해법은?...“공공” vs “균형”>(3/26) 보도에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았다. 또 부산의 주요 의제를 후보들에게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하지만 가덕신공항과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에서만 전체 후보 6명의 입장과 답변을 소개했고, 나머지 어반루프, 부동산 대책, 난개발 해법 등은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만 집중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내용에 있어서도 공약 검증이라고는 했지만 공약 실현 가능성과 예산 조달 방안을 짚기보다는 공약을 자세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

군소 후보들의 공약에 집중한 보도는 국제신문 <“우리도 봐 달라” 군소후보 4색 유세>(3/26), 부산일보 <탄소배출·민생·군 공항·세균실험...군소후보들, 공약 차별화 행보>(3/26), KNN <군소정당 후보들 소신 공약 '눈길'>(3/25) 보도가 있었다. 이들 기사에서는 손상우, 배준현, 정규재, 노정현 후보의 주요 공약과 소신을 전했다. 하지만 검증보다는 공약 나열에 치우친 선거 캐치프레이즈 소개에 불과했다. 부산MBC도 <여야후보 '이것만은 꼭 추진'>(3/26)에서 6명 후보의 1호 공약 검증에 나섰지만,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공약 검증에 대부분의 리포팅을 할애하고, 군소 후보 4명은 한 문장씩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매체	보도 날짜	제목	언급 후보
국제신문	3월 23일	박형준, "원수 확보해 수돗물 불안 해소할 것"	박형준
	3월 24일	김영춘 "디지털 자산거래소. 동백뱅크 공약" 박형준 "노포동~북항 남북축 대심도 추진"	김영춘, 박형준
	3월 25일	김9조 대, 박6조 대... 두 후보 재선을 염두에 둔 공약들	김영춘, 박형준
	3월 26일	"우리도 봐 달라" 군소후보 4색 유세	손상우, 배준현, 정규재, 노정현
부산일보	3월 23일	부산엑스포' 꺼낸 민주, 판세 바꿀 모멘텀 될까	김영춘
	3월 24일	김 "부산판 인터넷 은행 설립" 박 "노포동~북항 대심도 추진"	김영춘, 박형준
	3월 26일	탄소배출·민생·군 공항·세균실험...군소후보들, 공약 차별화 행보	손상우, 배준현, 정규재, 노정현
KBS 부산	3월 23일	[공약검증K]③ 일자리 창출...해법은 '각각'	김영춘, 박형준
	3월 24일	여야 부산시장 후보, 정책발표 잇따라(단신)	김영춘, 박형준
	3월 25일	[공약검증K]④ 재난지원금 '찬성'...지원 방식은 달라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정규재, 노정현
	3월 25일	"교육발전기금 1조 조성"..."중소 중심도시 육성" (단신)	김영춘, 박형준
	3월 26일	[공약검증K]⑥ 난개발 해법은?..."공공" vs "균형"	김영춘, 박형준
	3월 26일	김영춘 "부산경제 부활"...박형준 "부산시정 혁신" (단신)	김영춘, 박형준
부산MBC	3월 23일	김영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공약(단신)	김영춘, 박형준
	3월 26일	김영춘, 박형준 유세전 후끈...폭로전으로	김영춘, 박형준
	3월 26일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공약대전] 여야후보 '이것만은 꼭 추진'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정규재, 노정현
KNN	3월 23일	김영춘.박형준 "부산독립운동기념공원 약속"(단신)	김영춘, 박형준
	3월 25일	벚꽃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돌입	김영춘, 박형준
	3월 25일	군소 정당 후보들 소신 공약 '눈길'	손상우, 배준현, 정규재, 노정현
	3월 28일	부산시장 관사 '시민품으로 기대'	김영춘, 박형준

△ <표 3> 공약정책 보도

金 9조대, 朴 6조대... 두 후보 재선을 염두에 둔 공약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 공개
김영춘 신공항·경부선 등 10개
박형준 어반루프 등 43개 달애
임기 1년짜리 사업으로 광범위
민선8기 연임 가정에 책정한다**

9조5172억 원(김영춘) 대 6조2974억 원(박형준).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주요 공약 실현 비용이다. 두 후보 모두 사실 상 임기 1년짜리거나 아닌 민선8기까지 연 임을 가정하고 공약 및 예산을 추산한 것 으로 분석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1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두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공약 및 추정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김영춘 후보는 국책사업 5개와 자체사 업 5개 등 총 10개 사업을 제시했고, 예 산은 9조5172억 원으로 추산했다.

1순위는 7조5400억 원 규모의 가덕신 공항 건설(전액 국비)이다. 2순위는 가덕신공항-부산신항-철도 트라이포트 물류망 구축과 복합 재개발을 연계한 경 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염두에, 국내외

◇ 김영춘·박형준 10대 공약 및 재원 추산

김영춘		박형준	
공약	예산 추계	공약	예산 추계
10개 사업	총 9조5172억 원	43개 사업	총 6조2974억 원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및 2029년 연금	7조5400억 원	어반루프 건설	1조 500억 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예산발생 없음	기업융합 연구기반 신항철역 체계 구축 등	1조2900억 원
40리 경부선 숲길 조성	1조5810억 원	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	800억 원
청년신용부부 주택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90억 원	세계적 오피라 페스티벌 유치	10억 원
공정산-백양산-낙동강 하구 국립공원 조성	예산발생 없음	햇데이터파크 조성	50억 원
천문대 프로젝트	60억 원	저출산 예산 1조원대 증액	1조 원
공공의료벨트 구축	2594억 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20억 원
여성부시장 임명	예산발생 없음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운영	40억 원
취학 전 아동 실질적 무상보육 의무화로	1단계 연 218억, 2단계 연 405억 원	복합 복합리조트 조성	15억 원
장년수당 지급	연차적 확대해 연 1000억 원	데이터 거래소 유치 등	20억 원

※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부자 기업에 대해 선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 특례를 부 활한다는 계획이다.

또 40리 경부선 숲길 조성으로 부산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로를 재해치하고 이 구간(16.5km) 숲길을 조성하는 공약 도 담았다. '경부선 지하화' 공약으로 국 비 1조3660억 원, 시비 1000억 원, 기타 1150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 다. 또 청년신용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최 대 2억 원까지 이자를 지원(3000세대)

핵심사업인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 철도) 건설예산은 1조5000억 원으로 추 정했다. 기초연구를 마친 뒤 내년부터 사 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2023년 예타, 2024년 기본 및 실시상계 등을 거쳐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30년에 완공판 다는 로드맵이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융합 연구기반 신항철역 체계 구축 및 도심형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엔 1조 2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 재조정을 통한 적정주 택 공급과 도시철도 역사들 개발한 청년 주택 공급에도 시비-국비-민자를 포함 800억 원을 들인다. 세계적 오피라 페스 티βάλ 유치(10억), 반려동물용 위한 복합 테마파크 조성(50억), 저출산 관련 예산 1조 원 증액 등도 핵심 공약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운영과, 복합 복합리조트 조성, 데이터 거래소 및 데이터 결합 원 문 기관 유치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시무 추정 예산 두 후보가 제출한 공약가계부에 대해 "시인은 1년3개월짜리 고용계약을 원하는데 5년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추론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김영춘·박형준 후보 주요 공약검증 기사 (국제신문, 3/25, 4면)

국제신문의 <김 9조대, 박 6조대...두 후보 재선을 염두에 둔 공약들>(3/25, 4면)기사는 매니 페스토실천본부가 김영춘, 박형준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공약 및 추정예산 자료를 공개해 두 후보의 핵심 공약과 재원을 짚었다. 두 후보 모두 임기 1년짜리 사업이라기보다 민선8기 연임을 가정해 책정한 공약과 예산임을 지적하며 "시민은 1년 3개월짜리 고용계약을 원하는데 5년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꼬집었다.

공약 검증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이다.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조달방법과 구체적 실천 로드맵, 시기적 가능여부 등을 살펴봐야하고, 지역언론은 그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지켜질 수 없는 공약의 스피커 노릇만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유권자가 정치 선택법으로만 제시된 공약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선거공보물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모니터 기간	2021년 3월 22일(월)~3월 28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모니터 대상	'선거'를 한 번이라도 언급한 기사이거나 후보, 지지율, 공약, 유세 등의 단어를 언급해 4·7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기사

<끝>